

대한속기협회소식

<http://www.steno.or.kr>



제25호 2016. 1. 29.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발행/발행인:이철우/편집인:한순덕/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사무처 의정기록과 /전화:788-2371~6. 788-3081~6. FAX:788-3571

이사장 신년사



존경하는 대한속기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사장 이순영입니다.

지난해 7월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만, 일일이 인사 여쭙지 못하고 이렇게 소식지를 통해 인사드릴 기회를 가지게 되어 송구하고 반갑습니다.

지난해는 속기협회가 열심히 노력하고 결실을 맺은 한 해였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제50차 인터스테노총회에 우리 대표단이 참가하였고요.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이 세계속기경기대회 리얼타임 부문에서 은메달·동메달을 제패하여 대한민국 국위를 선양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전 세계 속기인들이 모여 각각 다른 언어로 속기 실력을 겨루는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이처럼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어 이사장으로서도 기쁘고 또한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국회연수원 위탁의 '지방의회 속기실무자과정' 교육도 잘 치렀고요, 우리 협회의 정기간행물인 '속기계 51호'를 발간하였으며, '한글속기무료강습'도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한글문화큰잔치' 행사에 우리 협회가 참여하기로 결정하여 '한글로 된 국회의록'과 '한글속기 기본 글자체' 등을 전시하고 한글속기 문자를 이용한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만의 명함'을 제작해 줌으로써 시민들이 친밀감을 가지고 속기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협회는 매년 변화하고 발전하며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협회 이사장의 직을 수행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원님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행복하게 일하고 싶다는 설렘으로 저는 새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 회원님들께서도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이순영

이사진 신년인사

**총무·재정
이사
오 경 애**

안녕하세요? 총무·재정이사 오경애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번 총회를 위해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동안 협회를 위해서 전임자들이 수고를 참 많이 하셨구나 하는 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협회는 각 이사님들 중심으로 예정된 사업들을 잘 마쳤습니다. 협회의 사업 영역을 좀 더 확장하고 회원들을 더 많이 확대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우리가 가진 한계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2016년은 19대 국회에서 20대 국회로 넘어가는, 매우 중요한 정치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 마음이 더 분주해지는 느낌입니다.

회원님 여러분, 행복하고 보람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새로 사업부를 맡게 된 최윤정입니다.

살다 보면 가끔은 익숙한 것들과 이별하고 새로운 것을 익히고 그에 적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2016년은 그런 해가 될 것 같아 기대가 큼니다.

올해 역시 사업부의 가장 큰 행사는 5월로 예정하고 있는 세미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비록 줄어든 예산으로 인해 어려움도 있지만 그 안에서 나름대로 알찬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회원님들의 가정과 사업이 두루 평안하고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사업회원
이사
최 윤 정**

**홍보이사
한 순 덕**

안녕하십니까? 새로 홍보이사를 맡은 한순덕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5년을 보내고 희망 가득 찬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리는 ‘한글문화큰잔치’에 처음으로 참여했습니다. ‘한글문화큰잔치’는 매년 한글날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행사입니다.



우리 협회는 우리나라 역사기록물인 국회회의록과 한글속기문자의 전시를 통해 기록문화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또한 모니터 영상을 통해 국제속기경기대회에서의 입상 등 한글속기의 위상을 소개하였으며, 한글속기기계 체험 행사와 한글속기문자로 된 명함 제작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준비해 준 홍보부원 모두와 행사요원으로 많은 협조를 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병신년(丙申年), 붉은 원숭이의 해입니다. 붉은 원숭이는 불길 같은 기운과 열정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회원 여러분 모두 좋은 기운과 열정 그리고 지혜로움으로 모든 소망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랜만에 함박눈이 펄펄 내리는 날, 짧은 글로 신년 인사드립니다.
김영중 국제이사입니다.

처음에는 제 옷이 아닌 것을 입은 듯했는데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인터스테노총회에 참석한 협회대표단 그리고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회원님들 덕분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감사한 일입니다.

2016년의 문을 열면서 시작된 국회 의정기록과의 경사와 기쁨이 협회에도 이어져 회원 모두가 희망과 행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국제이사
김영중

청양의 해가 지고 붉은 원숭이의 해인 2016년이 밝았습니다. 재주 많고 영리한 붉은 원숭이의 기를 받아 바라는 바를 모두 이루는 멋진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 자격심사·연구위원회에서는 전국한글속기경기대회 겸 국제속기경기대회 참가자를 예선과 준결선, 결선을 거쳐 선발하고 경기대회 문제 출제 및 녹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부가 번역하여 보낸 국제속기경기대회 문제를 받아 녹음하여 국제부로 보내는 일도 하였습니다.

자격심사·연구위원장

유회연

이렇게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 선발된 3명의 선수들이 2015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국제속기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을 하였습니다. 보람되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여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라며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도 회원 여러분에게 행운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빌며 행복하자, 사랑하자, 건강하자라고 말하고 싶네요.



국회 새내기들에게 묻다!

10문 10답

질문



김은희

<p>1. 당신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p> <p>2. 특별한 취미나 관심사가 있다면?</p> <p>3. 당신의 이상형은?</p> <p>4. 속기와 만나게 된 계기는?</p> <p>5. 속기사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나는?</p> <p>6. 국회 합격 소감은?</p> <p>7. 첫 월급을 받고 한 일은?</p> <p>8. 입사 1년 안에 해 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p> <p>9. 선배님들께 한마디!</p> <p>10. 앞으로의 다짐과 각오를 밝혀 주세요!</p>	<p>1. 건전지. ‘에너지라이저’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루를 이틀처럼! 언제나 에너지 넘치고, 나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p> <p>2. 특별한 취미는 주말마다 사우나에서 한 주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실수했던 일도 반성하고 다음 한 주를 개운하게 열 수 있는 저만의 힐링 시간입니다.</p> <p>3. 본인의 일에 자부심이 있는, 워트 & 스마트하신 분을 찾고 있습니다. ^^</p> <p>4. 대학교 3학년 때 회의장 보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난 프리랜서 속기사분을 통해 속기를 처음 접했습니다. 회의의 현장이 기록으로 존재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점에 반해 속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p> <p>5. 국회속기사를 목표로 될 때까지, 끝까지 도전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p> <p>6. 작년 실기시험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바라봤던 의사당 지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의사당 지붕 아래 ‘주무관 김은희’라 쓰인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꿈만 같습니다. 그날의 마음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결맞은 역할을 다 해내야 한다는 책임감 또한 잊지 않을 것입니다.</p> <p>7. 첫 월급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부모님께 모두 드렸습니다. 두 번째 월급은 저를 위해 탕진할 계획입니다!</p> <p>8. 거창하게 무엇을 하겠다라기보다는 앞만 보고 달려온 지난 준비 기간에 대한 보상의 시간으로 채우고 싶습니다. 하루를 이틀처럼 배우고 익히고 만나고 일하고 즐기며 두 배로 바쁘게 지내고 싶습니다.</p> <p>9. 겸손한 자세로 배우고 열정적으로 생활하겠습니다!</p> <p>10. 모든 일의 근원은 ‘즐거움’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원동력으로 항상 즐겁고도 성실히 국회속기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p>
--	---

국회 새내기들에게 묻다!



박승연

1. '도전'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생각만 하고 도전하지 않고 포기해 버렸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우쿨렐레를 배운 적이 있었는데 완벽하게 배우지 못해서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다시 배워 보고 싶습니다.
3. 자상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4. 처음에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서 속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나만의 전문성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속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5. 공무원 쪽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6. 처음에 합격했다는 공고를 보고 얼떨떨한 느낌이었습니다. 제 합격 소식을 접하신 가족들이 저보다 훨씬 더 기뻐하셔서 뿌듯했습니다.
7. 공부하는 동안 저에게 힘이 되어 주신 가족들에게 작은 선물과 맛있는 저녁을 사드렸습니다.
8. 조직에 적응하고 업무를 빠르게 숙지하는 것이 1년 안에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9. 항상 배우는 자세로 말은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따끔한 충고도 부탁드립니다.
10. '이번 정류장은 국회의사당입니다', 아침에 버스에서 내릴 때마다 들리는 안내방송입니다. 안내방송을 들을 때마다 '내가 진짜 국회속기사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침마다 버스에서 내릴 때 들리는 이 안내방송을 들으며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문 10답



양세희

1. '상큼이'. 이 단어가 참 부끄럽지만 헝가리 세계속기경기대회에 같이 동행한 속기 선배님의 사모님께서 상큼이라는 애칭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평소에 잘 웃고 밝은 에너지를 주변에 퍼뜨린다는 것이었습니다.
2. 정신 건강을 위한 취미는 '생각 버리기'라는 책의 저자인 코이케 류노스케 스님께서 쓰신 책들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 건강을 위한 저의 취미는 요가와 근력운동을 결합한 필라테스입니다.
3. 제가 아토피가 있기 때문에 저의 이상형은 피부가 건강하고 깨끗한 남자입니다.
4. 저는 책을 읽으면 기억하고 싶은 구절들을 컴퓨터 파일에 저장하곤 했습니다. 2벌식 키보드로는 오타가 많고 느리기 때문에 해결 방법을 찾다 보니 3벌식 키보드를 쓰는 속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5. 전문직 중 하나를 선택해 그것과 관련된 곳에 취업을 했을 것 같습니다.
6. 들어가기 정말 어렵다는 국회에 저를 뽑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국회의 위상에 걸맞은 공무원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7. 부모님께 식사 대접을 해 드렸고 그동안 고생한 저 자신을 위한 선물을 샀습니다.
8. 어느 봄날, 국회의사당 앞 벚꽃거리를 남자친구와 다정하게 걷고 싶습니다.
9. 속기사 중 최고라는 국회속기사 선배님들을 따라 저도 최고의 속기사가 되겠습니다.
10. 국회속기사 업무도 잘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국회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국회 새내기들에게 묻다!



이지영

1. ‘한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어는 지금의 저를 뜻한다기보다는 항상 마음에 새기는 말입니다. 앞으로도 지금의 초심을 잃지 않고 한결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 베이킹에 관심이 많습니다. 잘 만들지는 못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빵이나 케이크를 친구들에게 만들어 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앞으로 학원을 다니면서 베이킹을 배워 보고 싶습니다.
3. 따뜻하고 자상한 사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좋고 무엇보다 제가 닮고 싶은 부분이 많은 사람이 좋습니다.
4. 음악을 전공하면서 제일 재미있었던 과목이 바로 청음이었습니다. 청음이란, 음악을 듣고 음과 박자를 정확히 써 내는 것이었는데 그 분야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찾아보다가 속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5. 음악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계속 국회속기사에 도전했을 것 같습니다.
6. 몇 번의 도전 끝에 합격했기 때문에 사실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국회를 지날 때마다 ‘내가 과연 저곳에서 일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막연하던 꿈이 현실로 이루어져 매일 아침 국회로 출근한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행복합니다.
7. 첫 월급을 받고 부모님과 친척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식사를 대접했는데 무척 좋아하셔서 기뻐했습니다.
8. 우선 입사 1년 동안은 국회 조직과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며 지내고 싶습니다.
9.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따끔한 충고와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10. 매사에 노력하며 모든 일에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쁘게 지켜주세요.^^

10문 10답



임고은

1. 저는 ‘스핀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신입으로서, 국회속기사로서 배워야 할 부분들을 쑥쑥 흡수하겠습니다.
2. 음악 들으며 산책하거나 등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름에는 산길의 계곡물에 발을 담그며 리프레시하는 시간을 즐깁니다.
3. 제 이상형은 자상하고 배려심 깊은, 겸손하고 신중하며 자신감 있는 사람입니다. 외모적으로는 배우 이상윤 같은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4. 뉴스를 보며 국회 회의장 가운데에 앉아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할까 항상 궁금해 했습니다. 우연히 속기사라는 것을 알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5. 어느 회사를 다니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6. 합격자 발표 날, 하루가 너무 길 것 같아 무작정 밖을 돌아다녔습니다. 친구를 통해 합격 소식을 듣고 뿔 듯이 좋았지만, 정말 뿔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달려가 말씀드리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금도 ‘아, 내가 국회속기사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 때마다 두근두근합니다.
7. 부모님, 동생과 저녁식사를 하고 용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카드값으로 지출했습니다.
8. 주무님이 뿌듯해 하실 만큼 업무에 익숙해지고 싶습니다. 또 벚꽃축제 때 커피를 들고 윤중로를 걷고 싶습니다. 그동안 시험준비 때문에 누리지 못했던 바깥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9. 선배님들의 국회 생활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이야기들이 흥미진진하고, 동기 부여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시간 한번 내 주세요. ^^
10. 30년 후, 지난날을 돌아봤을 때 웃으며 얘기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쌓아 나갈 것입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분명 있겠지만 항상 배우는 자세로 겸손히 임하겠습니다.

국회 새내기들에게 묻다!



지인영

1. 정의라기보다는 ‘벼’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법씨에 불과하지만 선배님들께 많은 가르침을 받아 시간이 지나 벼가 되었을 때 자만하지 않고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2.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서 쉬는 날에 영화관에 자주 갑니다.
3. 자상함과 겸손함을 갖춘 잘생긴 원숭이상입니다.
4. 대학생 때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속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5. 공무원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일반행정직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6. 국회를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적도 많이 있었지만 이것을 잊게 해 줄 만큼 제 인생 최고의 목표를 이뤄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7. 국회 필기를 준비하면서 매일 후줄근한 트레이닝복만 입었더니 예쁜 옷들을 너무 입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쁜 옷들도 사 입고, 저를 위해 꾸미는 데 썼습니다.
8. 국회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여러 회의에 들어가서 다양한 업무를 익히고 싶습니다.
9. 처음이라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많이 많이 가르쳐 주세요!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하나 열심히 배워서 선배님들처럼 훌륭한 속기사가 되겠습니다.
10. 힘들게 국회에 들어온 만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용식 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노력하는 겸손한 공직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0문 10답



최초롱

1. 열심히 해내는 ‘소’입니다. 선배님들처럼 해내려면 수년이 걸리겠지만 열심히뿐만 아니라 모든 부위가 쓸모 있는 ‘소’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2. 현재 특별한 취미는 없지만 ‘오카리나’라는 악기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아직은 서툴지만 열심히 연습해서 노래 한 곡을 연주해보려고 합니다.
3. 성실하고 긍정적이며 파이팅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4. 하고 싶은 일을 찾던 중에 제 적성에 맞는 것 같아 속기학원에서 무료강의를 들었고, 바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5. 하고 싶은 일이 아닌 주어진 일에 만족하면서 꿈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6.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는 저를 보면서 ‘꿈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 오기까지 저보다 더 마음 졸이시고 응원해 주셨던 부모님께 더 효도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였고,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며 잔소리 없이 응원해 주던 친구, 지인들에게도 잘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7. 가족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였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작은 선물을 준비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8. 선배님, 동료들과 작은 공통점을 찾아 소통하는 계기를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9. 성장해 나가는 후배들을 이끌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든든한 후배가 되도록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10. 누군가 ‘최초롱’을 떠올렸을 때 미소가 지어질 수 있도록 밝고 즐겁게 선배님·동료들과 생활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공직생활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회 새내기들에게 묻다!



최 해 수

1. '등대'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다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2. 특별하진 않지만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동창들과 조기축구회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주말에는 친구들과 PC게임을 즐겨하고 있습니다.
3.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열정적으로 임하는 사람이 이상형입니다.
4. 취업 준비를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는 과정에서 여의도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생각과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국회속기사를 알게 되었고 국회속기사가 되기 위해 속기를 시작했습니다.
5. 속기사가 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만약 속기사가 아니었다면 평범한 회사원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6. 사실 지금도 실감이 나진 않지만 합격발표 당시에는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고 그동안 뒷바라지해 주신 부모님께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7.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그동안 얻어먹었던 친구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 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고 싶습니다.
8. 힘들겠지만 부모님의 품을 떠나 독립을 하고 싶습니다. 언제까지나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혼자 나가 살면서 자립심을 키우고 싶기 때문입니다.
9. 직장생활이 처음이라 모든 게 서툴고, 때로는 혼날 일도 많이 있겠지만 최대한 빠르게 적응하도록 노력해서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후배가 되겠습니다.
10. 합격의 기쁨에 취해 있기보다는 다시 처음으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언제나 노력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10문 10답



홍 상 현

1. '자판기'입니다. A면 A, B면 B 적재적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재고 없음' 상태지만 조금씩 음료수를 채워 나가도록 성실히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2. 발목 인대가 두 번 끊어진 이후로 권투와 축구는 끊고 농구나 자전거 타기, 간단한 조깅을 즐깁니다. 종종 혼자 영화를 보거나 십자수를 놓은 후 지인들에게 선물하기를 좋아합니다.
3. 제가 웃는 상이 아니어서 잘 웃고 귀여운 사람을 좋아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4. 속기사가 부족해 재판을 못 받고 있는 성폭력피해자들이 많다는 광고를 보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5. 군인, 검사, 형사, 백수 중 하나를 했을 것입니다.
6.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국가를 위해, 국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명분을 가지게 되어 행복합니다.
7. 친인척 다섯 분께 20만 원씩 용돈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3개월간 적자입니다.
8.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음악을 들으면서 자전거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두 번째, 표준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싶습니다.
9. 첫 직장이기엔 저는 너무 부족하고 멋모르는 아기새입니다. 선배님들께 아낌없는 조언과 질타를 부탁드립니다. 언젠가 독수리가 되어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
10. 대범하고 매 순간 감사하며 자신을 이겨내겠습니다. 또한 저의 의지는 당신의 의지이기엔 다른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제 길하겠습니다. 사소한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진정 중요한 것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하여 열정으로 오늘만 살 것입니다.

이사회 소식

■ 제224차 이사회는 2015년 4월 14일에 개최되어 ● 총무·재정이사회의 경과보고를 듣고 ● 부의안건 제1항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2015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액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안 조정에 관해 총무·재정이사회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총무부의 안대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 부의안건 제2항 부서별 보고를 상정하여 사업·회원이사로부터 2015 한글속기학술세미나 일시, 장소, 강사, 소요예산 등 계획(안)에 관한 보고가 있었고, 예산회계 처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국제이사로부터 2015년도 인터스테노 50회 총회 관련 보고를 받고 기간, 장소, 참가인원, 연회비 등에 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홍보이사로부터 소식지 발간과 속기계 51호 발간 계획과 속기계에 범국민언어문화개선운동 관련 내용 게재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자격심사·연구위원장으로부터 제23회 전국한글속기경기대회 관련 보고를 받고, 국제속기경기대회 참가자 선발을 겸한 전국한글속기경기대회인 만큼 여러 방면의 다양한 사람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제225차 이사회는 2015년 7월 14일에 개최되어 ● 총무·재정이사회의 경과보고를 듣고 ● 부의안건 제1항 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여 먼저 조영기 이사장의 안건 설명을 들은 후 의견 청취 및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의정기록1과장이 이사장직을 맡아 왔고, 현 의정기록1과장인 이순영 과장은 그동안 협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오신 만큼 이순영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하자는 김점동 이사의 동의에 이어 재청, 삼청을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추가 의결 사항인 집행이사 임명 부분에 관해서는 새 이사장의 복안(총무·재정이사에게 오경애 현 홍보이사, 사업·회원이사에게 최윤정 전 국제이사, 홍보이사에게 한순덕 회원을 선임)을 조영기 이사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의 유무를 거친 결과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 제226차 이사회는 2016년 1월 15일에 개최되어 ● 총무·재정이사회의 경과보고를 듣고 ● 부의안건 제1항 제49회 정기총회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이사장으로부터 총회 개최 일시·장소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논의 후 제49회 정기총회를 2016년 1월 29일(금) 18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부의안건 제2항 2015년도 결산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총무·재정이사로부터 2015년도 결산에 관한 보고를 받은 후, 정상덕 감사로부터 결산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정상덕 감사로부터 재정수입 방안 강구와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말씀이 있었고, 논의 후 2015년도 결산서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 부의안건 제3항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총무·재정이사로부터 2016년도 예산(안)과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듣고 논의를 거친 후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2015년도 사업결과 보고

- ◆ 제23회 한글속기학술세미나가 홍원연수원(경기도 소재)에서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총 100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김주미 국립국어원 전문위원의 ‘회의록 작성을 위해 꼭 필요한 어문규정’, 정재룡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의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사결정에 관한 사례’ 주제발표를 듣고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2015년 인터스테노 총회, 중앙위원회 및 IPRS(2015년 7월 18일~24일)에 본 협회에서는 이주성·손석련·김점동·김한우·안정근·김병수·최영림 회원이 참가하였으며, 인터스테노 국제경기대회에 손정아·최기에·김양수·양세희 회원이 참가하여 손정아 회원이 2위, 최기에 회원이 공동 3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 홍보부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협회 소식을 꾸준히 홍보 및 안내해 오고 있으며 제51호 속기계(2015년 도판)와 소식지 제24호를 제작 및 발송하였습니다.
- ◆ 서울, 부산, 인천 등 18개 컴퓨터속기학원에서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1주 동안 한글속기무료강습을 실시하였으며 참가인원은 116명이었습니다.
- ◆ 자격심사위원회에서는 제23회 전국한글속기경기대회를 5월 8일 국회의정관 전산교육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경기대회는 국제경기대회 리얼타임 방식으로 1분에 180자부터 320자까지 8분간 속기 후 수정시간 없이 제출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총 35명이 참가하여 실력을 겨룬 결과 1위 최기에, 2위 김양수, 3위 김은희 씨가 입상하였습니다.
- ◆ 지방의회 속기실무자과정 연수를 작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였습니다. 64개 지방의회, 121명의 속기사를 대상으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569돌 한글날 행사 '한글문화큰잔치'에 본 협회가 처음으로 참여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5일부터 9일까지 개최된 행사에 본 협회는 8일~9일 양일간 '한글로 된 국회의회의록 전시'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만의 명함 제작'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 ◆ 한중속기우호교류협회 중국 대표단이 2015년 12월 31일부터 2016년 1월 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탕커웨이 부이사장을 포함한 61명의 대표단은 국회 참관, 복지방송 견학, 한국스테노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하였으며, 국회 방문 시 이순영 이사장이 대한속기협회 및 국회 의정기록과를 소개하고 기념품을 전달하는 등 상호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원동정

◇ 승진

김은숙·김정아·윤승희(국회사무처)(2015.5.16)
의정기록과 속기주사→속기사무관
조영기(국회사무처)(2016.1.14)
의정기록과 부이사관→의정기록심의관
이순영(국회사무처)(2016.1.25)
의정기록과 과장(서기관)→부이사관

◇ 입사

김은희·박승연·양세희·이지영·임고은·지인영·
최초롱·최해수·홍상현(국회사무처)(2015.11.30)

◇ 복귀

간찬기(국회사무처)(2015.8.3)
이동준(국회사무처)(2016.1.25)

◇ 퇴직

이준태(국회사무처)(2015.5.18)
박정자(국회사무처)(2015.6.30)
김학순(국회사무처)(2015.6.30)
이경식(국회사무처)(2015.12.31)
이주성(국회사무처)(2015.12.31)

◇ 교육훈련 및 파견

정 란(국회사무처)
국립국어원(2015.8.3~2016.8.2)
이다교(국회사무처)
국내대학원(2015.8.3~2017.8.2)
김은숙(국회사무처)
국내대학원(2016.1.25~2018.1.24)

공지사항

▷ 회원가입 안내

회원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입회원서와 함께 가입비 1만 원, 연회비 2만 원, 사진 2매를 총무부로 보내 주시거나 총회 참석 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비납부 안내

우리 협회는 회비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협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회비 납부를 기대합니다.

▲ 회비납부 : 301-0160-1418-81 농협 대한속기협회

연 락 처

총 무 부 02) 788-3083 김경재(총무부장)
02) 788-3085 지성숙(재정부장)

▷ 변경된 근무처나 주소는 즉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 락 처

회 원 부 02)788-2375 정 숙(회원부장)
홍 보 부 02)788-2373 조윤희(홍보부장)

▷ 대한속기협회 홈페이지 주소는 www.steno.or.kr입니다.

자주자주 들러 주시고 관심도 가져 주세요.

▷ 홍보부에서는 속기계(52호)에 실을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 : 사진, 연구논문, 속기 실무, 수필, 회상기, 시, 기타 제언 등
그리고 원하시면 광고도 실어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홍보부장 조윤희(☎ 02-788-2373)에게 연락 주세요.